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mt5.12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 2,1-5

화답송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떤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2,7L-9.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복음 | 마태오 23,1-12

성가 | 입당성가 [329] 예물준비 [215]
영성체 [501] 파견성가 [227]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위령성월애 모든 연령 레지오단원 모든 영혼 전장군 김학순 김기선아오스딩, 정화자소화데레사 조상 김은성 베드로 김은성 베드로 이정진 안토니오 이정진 안토니오 윤기성 모니카, 황현상, 이재영, 차덕순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와 조상영혼 김철영 미카엘 이영화, 지경임 마리아 양재봉 이중환 노재인, 노을선 이문근신부,정마가렛,강마리아,홍데레사 윤희중 강주우소피아 원용환아킴 김종목리차드 조희정안나 강세랑엘리사벳 강건대마리아 박난성요셉프란치스코	연령회 꾸리아 김영빈 루시아 박혜화 도미니카 김영숙 카타리나 윤루시아 익명 가족 이영애 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양미숙 마리아 가족 이안나 양정윤 켈마 양복연 양복연 김경련 윤복홍 요한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요셉회
생미사	봉헌
김선희 스킨라스티카, 김대원 영육건강 프랭크 해리스 영육건강 운동진 프란치스코 영육건강 김진열 가롤로 신부 김진열 가롤로 신부 김진열 가롤로 신부, 김승범 프란치스코 강해숙 바울라 영육건강 박혜화 도미니카 황현상 윤기성 모니카 김보현 엘리사벳, 이하나세실리아, 황지윤아네스 이홍규 요한 건강 김지원 돈나, 김홍섭 루크 김유화 데레사, 이명숙 루시아 황지윤 아네스 생일 문에릭 엘리지오 김효주 수녀 김홍기 안드레아, 정재현 레오니아	김영희 윤루시아 김승애 클라라 이영애 레지나 은총의심 꾸리아 김경련 익명 익명 이영애 레지나 하늘처럼 성가대 이안나 가족 한서희데레사,안나 이영주비오 가족 은총의심 꾸리아 김승연안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11월 영명일 맞으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11.1 모든 성인 11.4 가롤로 11.10 레오(레아) 11.11 마르티노
 11.15 알베르토 11.16 마르가리타, 젤뚜르다 11.17 헝가리의 엘리사벳
 11.22 체칠리아 11.23 클레멘스 11.30 안드레아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 100세(상수연)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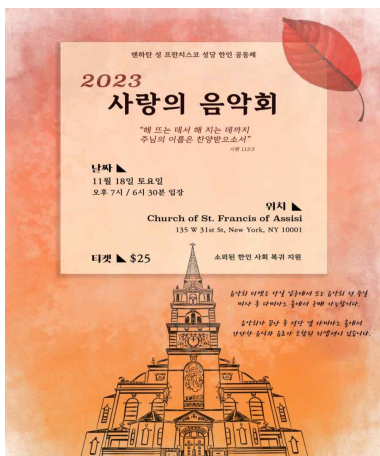


정현숙 모니카 자매님의 백세 생신 잔치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오늘(11/5) 미사직후/다미안홀
 *상수연(上壽宴):100세는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로 나눌 때 최상의 수명이라 하여 상수라 한다.

▶제 18회 사랑의 음악회

Love Concert - **간외된 한인사회 복귀 지원**



일시 : 11.18(토), 7pm.
 장소 : 맨하탄 성프란치스코성당
 티켓 : 25불. 단체장 또는 미사 후, 친교실에서 구입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의 성함은 <음악회 프로그램>에 기재됩니다.

▶견진성사 교리반

견진성사일: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
 첫만남: 오늘(11/5):11시
 대 상: 세례후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분(세례후 1년이상부터)
 신 청: 사무실 347.834.5784

▶11월 위령성월

모지에서 연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 Fr.가롤로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주일반	11/5(오늘), 휴강	Sr.효주
목요일반	매주 목, 10시 3A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본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청년, 찬양팀 '야훼이레' 팀원 모집

대상: 보컬이나 악기로 찬양팀 활동을 원하시는 분
 활동: 청년미사(매달 2째주 토)에서 성가로 찬양을 드리며 본당행사시 음향기기 제공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가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774조 2항

▶Daylight Saving Time Ends



오늘(11/5) 새벽 2시부터 일광절약시간 해제됩니다. 미사시간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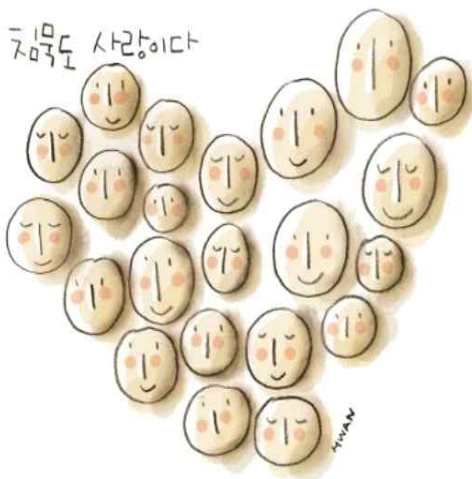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11,363 단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5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최예준사도요한 조성윤마실리오
11/12	김유화 데레사	정은철 프란치스코	김미혜 이레나	김미혜 이레나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글라라 최예준사도요한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8 WINE & LIQUOR
WEST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성인 聖人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예 선생님께서 제게 지어준 호號가 평주(平舟)입니다. 평화를 신고 다니는 배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원의가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호號가 있습니다. 하늘이 지어 주신 「시몬」이라는 호인데 이를 다른 말로 세례명 혹은 본명(本名)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호를 지을 때면 백범 김구(伯帆=흰 형뿔으로 만든 돛), 다산 정약용(茶山=녹차가 있는 산), 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무슨 뜻을 가진 명사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주신 세례명은 먼저 이 세상을 살다가 그것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사셨던 전인격자이신 분의 이름을 받고는 이를 본명(本名=본래 내가 되어야 할 성인의 이름)이라 칭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성자라고 부르듯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셨던 분들을 일컬어 성인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만큼이라도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던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는 대축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는 교회는 이러한 축일을 통해 우리들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1테살 4,3)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었음에도 원죄의 타락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은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우리들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영웅적 고행이나 극기가 우리를 성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드리는 삶이 우리를 성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1베드 1,26)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병태 시몬 신부